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문양의 대화형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재윤* ·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Conversational Pattern Designs Expressed on Fashion in the Early 2000's

Jae-Yoon Yi* · Min-Ja Kim**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5. 3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conversational patterns presented on the fashion in the early 2000's and analyze it from cultural view.

The expression of the patterns is a result of a creative aesthetic activity, mental activity, and the reflection of the common cognition. And the fashion is a part of the life environment. So the patterns presented on the fashion provides a clue to figure out the common unconscious sense for explaining the culture. The patterns have been expressed with different methods belonging to each culture such as weaving and prints. And those of the each cultural group have been communicating each other. The silk came to the Europe in the 6th century. The textile industry which flourished since 15th century. And they shows the chinoiserie or indian prints, not only the european culture. We can observe that the exchange of the techniques and cultures between cultural groups like the east and the west, and the presentation of the patterns is a way to express their own desires.

The patterns presented after 2,000 can be classified by the form and the contents. But, more specifically, the patterns classified by the contents, which is Conversational design, can be categorized as followed according to the origin; reflecting cultural identity, Popular culture, Lohas lifestyle, and art movements. Which can be summarized as that the people have more interest on the different cultural group, diversity, retrospectiveness, and exoticism, which the patterns originally belonged to than on the form itself.

Key words: pattern(문양), conversational design(대화형 디자인), retrospectiveness(복고주의), exoticism(이국적 취향)

I. 서론

복식에 있어 문양(文樣, pattern)이란 복식 표면을 장식하는 한 방법이다. Read는 문양이란 응용장식의 유형으로서 하나의 대상을 전면(前)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장식, 하나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여 장식한 부분에 연속해서 반복 사용하는 것을 의미¹⁾한다고 정의하였다. 문양은 복식에서 장식적 디자인 기법으로서의 소재 장식의 유형으로 색상과 소재의 패턴(무늬)을 사용하는 기법을 의미한다.²⁾

이러한 문양은 개념상으로 모티프(motif)와 패턴(pattern)으로 인식되는데 모티프란 문양을 이루는 기본 단위의 형태이며, 패턴은 모티프가 모여서 이루는 문양의 전반적인 형태를 말한다. 즉 패턴은 주어진 표면을 차지하는 장식의 전체를 나타내는 스타일이며 모티프란 그 패턴을 구성하는 주된 조형요소의 주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양은 모티프의 표현대상, 표현방식, 배열에 따라 그리고 패턴의 전개 방법에 따라 독특한 조형성을 표상하며 이를 통해 내적 미적 가치를 창출한다.³⁾

그런데, 문양의 주제나 표현 내용 및 방법은 순수하게 표현자의 창의성의 발로에서 창작된 조형적 결과물이라기보다, 표현자 및 관찰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인식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문양의 표현은 창조적 미화 활동의 결과인 동시에 정신적 활동이며, 그 문화 집단의 공동적 의식의 반영이다. 이러한 면에서, 문양은 조형 미술의 한 분야에 포함되고 조형원리가 적용되면서도, 그 주제의 선정이나 표현되는 내용에 있어 순수 미술과는 차이가 있다. 정리하자면, 문양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가치의 상징형으로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창작되는 것이다. Meller 등⁴⁾은 이러한 문양의 특징을 '유령작가'(ghost artist)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유령작가란, 그 누구도 어떠한 문양을 완전히 창작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문화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사라지지도 않는 문양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반복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문양은 특정한 시기에 그 문화권에서 해석하는 대로 표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장식조형은 시대와 민족의 조형양식의 특질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전형이며⁵⁾, 어떠한 조형물에 장식된 문양 자체의 조형성을 관찰하는 것은 그 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편 패션은 생활사의 일부분으로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문화 집단 내에서의 의식의 소통에서 큰 의미를 지니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패션에 표현된 문양은 해당 문화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무의식적인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에 나타난 문양은 단순히 시각을 자극하는 장식의 역할을 넘어, 문양 자체에 대한 의미, 문화적 정체성, 연상작용 등을 소통하는 매개체이며, 이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시대를 대변하는 의식의 소통과 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국내 학계의 문양에 관한 연구는, 복식사상 특정 시대의 특정 문양에 대한 복식사적 측면의 접근⁶⁾, 에스닉 패션의 일부로서 표현된 특정 문양에 관한 접근⁷⁾, 혹은 어떠한 종류의 문양이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고찰⁸⁾ 등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각각의 세분화된 기준 하에서 그 문양들의 시문 방식이나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에서 매우 세분화되고 범위를 한정하는 접근을 시도하였다면, 본 고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패션에 표현된 문양의 양상과 종류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들과 종류를 살펴보고 종류에 따른 문화적 배경 및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료로 2003년 FW부터 2007년 SS까지 최근 5년간의 여성컬렉션에 나타난 작품들 중 문양이 표현된 것만을 모아, 시즌별로 최종 각 60점 이상 총 650여 점을 추출하여, 이를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패션 잡지 및 온라인 사이트 등 각종 컬렉션 자료들과 정보지 등을 참고하였다.

II. 문양과 복식

1.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역사

복식에 사용된 문양의 역사는 복식의 역사와 함께한다.⁹⁾ 문양의 기원은 주술적 믿음이나 집단 간의 구별을 위한 상징적, 도구적 사용, 혹은 우연적인 획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각의 문화권에서 의복에 표현될 때 각각의 전통적인 직조 방법 혹은 자수, 프린트 기법 등을 통해 직물에 표현되었으며, 문화권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그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

그 개략적인 역사를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교류는 6세기 동양으로부터 유럽에 실크가 전파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비잔틴 시기 그들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동양 문화인 이슬람 문화와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동양과 서양의 의복 문화의 교류는 계속된다. 13세기부터는 중국의 문양이 유럽 직물의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15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번영한 직물 산업은,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유럽 각국에서 더욱 활발해지면서 그 특성이 두드러진다. 지리상 발견과 때를 맞춘 이 시기의 유럽인들은 직물을 직조, 혹은 염색함에 있어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에 바탕을 둔 문양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기원을 둔 중국풍 취향(chinoiserie)이나 인도의 프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 프랑스의 제정 시대에는 신고전주의의 흐름을 따라 그리스, 로마의 유물을 주제로 하거나, 그들의 문양들을 사용하였다. 이후의 직물 문양은 미술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르누보, 미술공예 운동의 흐름과 함께 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팝 아트 등 여타 예술, 문화를 반영해 왔다.

2. 문화적 정체성의 반영으로서의 문양

이와 같이 직물, 패션에 나타나는 문양은 동서양 간, 이(異)문화권 간의 끊임없는 기술적, 문화적 교류의 산물이었으며, 그 문화권 내부에서의 욕구들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박선희(2000)은 예

술양식의 변화¹⁰⁾를 장식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크게 기하학적 장식과 유기적 장식, 그리고 이들이 혼재된 장식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각 중세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기하학적, 이후에는 유기적 장식 유형을 보이며 이 둘을 중세 시대가 혼재된 장식 유형으로 매개한다고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하학적 장식 디자인은 주로 직선형으로 나타나며, 그의 이면에는 아폴론, 기능주의, 이성주의, 도구주의, 고전주의의 철학이 자리잡고 있으며, 유기적 장식 디자인은 곡선형을 특징으로 하여, 디오니소스, 자연주의, 우미주의, 표현주의,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이 혼합된 상태로 나타나는 유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직물에서의 문양 표현의 역사와 각각의 장식적 특징들을 살펴볼 때, 서구의 문화적 환경이 이국 문화와의 교류가 활발한 시점에서, 직물 문양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타문화와의 교류가 많은 시기에 이국적 취향의 영향을 많이 발현하게 되는데, 이는 위에서 지적한 유기적 장식 디자인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시기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국적 취향이 복식의 문양에 사용되는 이유는 전 역사를 걸쳐 볼 때 그 시기에 자문화(自文化)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움에 대한 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김수경¹¹⁾이 지적한 이국취향(exotism)의 요인 중 호기심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국적 취향들은 서구의 디자인에서 가리워져 있다가 민속적 문양들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 적정한 시기에 '새로운' 방식['new' twist] 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¹²⁾

20세기에 들어 대량생산 체제가 보편화되고, 모더니즘의 특성인 단순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장식적 디자인 사용은 감소세를 나타낸다.¹³⁾ 그러나 패션에서 나타나는 문양의 사용은 젊은이들이 패션을 주도하던 1960년대 이후에 다시 나타난다. 대량 생산과 대중 문화에 힘입은 당시 패션에서는 희귀한 색과 직물을 사용하고, 유기적 장식이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는데, 뒤 이은 1970년대까지 에스닉, 레트로의 영향으로 유기적 장식 디자

인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스포츠웨어 영향이 커서 장식보다는 기능성이 주가 되어, 장식을 제거하고 형과 라인을 강조한 미니멀리스트들이 주목받는 시대였다. 장식적 측면이 극도로 단순화되고 감소되고 기능이 강조되는 복식의 경우 형태 표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도 특정한 장식적 디자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강했던 1990년대 패션에 있어서는 미니멀리즘의 영향도 강했던 반면¹⁴⁾, 다시 장식적 디자인도 다시 돌아온다. 70년대로의 레트로 경향과 다원주의적 경향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기계화, 대량화에 의한 획일성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패션에서 다원화된 민족성의 표현이 커지면서 더욱 확대되게 된다.

이와 같이 문양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양의 종류를 분류하여 이 중 문화적 정체성을 내포하는 디자인 즉, 대화형 디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문양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유형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양을 분류하였다.

3. 직물에 표현된 문양의 분류와 표현 방법

직물에 표현된 문양은 형태와 내용면에서 혹은 복합적인 특징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된다.¹⁵⁾

예를 들어, Meller 와 Elffers¹⁶⁾는 직물의 문양을 'Floral, Geometric, Conversational, Ethnic, Art movement & Period Styles', 즉 꽃 문양, 기하학적 문양, 대화형 문양, 민족적 문양, 예술운동과 시대양식 문양으로 구분¹⁷⁾하고, 이경순¹⁸⁾은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의 종류를 '꽃 디자인(Floral Design), 이야기 형식의 디자인(Conversational Design), 전통적인 디자인(Traditional Design), 노 프린트(Little nothing Designs), 다큐멘터리 디자인(Documentary Design), 텍스처와 직조(Textures & Weaves)'로 구분하였다. 차임선¹⁹⁾은 텍스타일 디자인을 모티프 별로 크게 '꽃과 보태니컬(floral and botanical), 추상(abstract), 에피소드(conversational)'로 분류하였다. 먼저 Meller

와 Elffers의 경우, '꽃 문양'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물의 문양으로서 꽃을 소재로 하여 이를 사실적 혹은 단순화하거나 이들의 배치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문양의 소재, 즉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기하학적 문양'의 분류에는 점, 선, 선의 반복 및 교차에 의해 이루어진 스트라이프 및 체크 문양 등이 속하며, '대화형 문양'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소재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특정 계절을 주제로 한 소품들의 표현, 풍경 묘사 등으로 나타난다. '민족적 문양'은 유럽이외의 국가들의 문화를 소재로 한 것으로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재해석되어 현대 패션에 나타나기도 한다.²⁰⁾ '예술운동과 시대양식 문양' 분류에 속하는 문양은 해당시기의 예술사조, 조형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우, 혹은 디자이너나 예술가가 직접 예술과 직물 디자인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몇 백 년이 지나고 난 후 과거의 특정 사조를 주제로 디자인 한 경우가 이에 속하기도 한다. 이경순의 경우, '꽃 디자인'은 위의 경우와 일치하며, '다큐멘터리 디자인'을 문화, 민속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정리하고 있어 Meller 등의 '민족적 문양'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페이즐리(paisley), 푸라드(foulards) 등 매우 인지도가 높은 문양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차임선 역시 모티프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면서 기하학적 문양 이외의 다른 문양도 '추상적인 디자인'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에피소드', 즉 대화형 디자인이라는 분류로 특정 주제를 담은 모티프들을 배치한 문양들을 분류하고 있다.

문양이라는 것이 초기에 형태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위에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사용되는 의미의 중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양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단일체제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학자마다 용어나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이 되는 개념은 형태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이다. 위의 분류 중 '꽃 디자인'이나 '기하학적 디자인', '노 프린트 디자인'은 그 형태적인 특성에 의한 구분이며, 그 이외의 분류는 표현된 문양의 내용적인 특성에 따른 구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그 문양 자체보다

는 문양이 담고 있는 이야기, 즉 문양이 발현된 문화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양의 분류를 크게 형태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형태적 특성에 의한 디자인의 구분과, 이야기 형식, 전통적인, 민족적인, 예술 양식을 반영하는 즉, 문화적 배경을 담은 넓은 의미의 대화형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태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계통에는 기하학적 문양, 점문양, 스트라이프 문양, 사실적 문양, 단독 문양, 연결 문양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며, 내용적 분류의 계통에 있어서는 각 문화의 전통적 문양, 예술 사조를 따른 문양 등,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대화형 디자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속성이 융합한 디자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타탄 체크의 경우 그 형태적인 속성으로만 분류한다면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단지 선과 면들의 교차로 인해 생성된 문양이 아니라, 문양 자체로서 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화형 디자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형태 자체 뿐 아니라 이들의 표현 기법에 의한 구분으로, 직조에 의한 것, 염색에 의한 것, 자수에 의한 것, 여러 가지 장식 기법을 통한 것 등의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법 상의 문제들 보다는 그 형태, 색상, 의미 등 문양 자체에 집중하며 관찰하고자 한다. 즉, 직조, 직물 표면의 염색, 자수, 컷워크 등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포괄하고, 형식보다는 표현된 문양 자체에 대해 접근하였다.

Ⅲ.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문양

2000년대 이후에 패션에 표현된 문양을 각종 컬렉션 자료들과 정보지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2003년 FW부터 2007년 SS까지 최근 5년 간의 뉴욕, 파리, 런던, 밀란의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들 중 문양이 표현된 것만을 모아, 시군별로 최종 각 60점 이상, 총 650여 점을 추출하여 이를 분류하였다.

1980년대 기능주의를 뒤로하고 탈획일화, 다원화를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아가는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이후 패션에는 다원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즉, 동양의 문화로부터 시작하여 서구 자체의 민속, 전통으로까지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문양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종류의 문양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²¹⁾

1.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

가. 형태적 분류에 의한 디자인

1) 기하학적 문양(Geometric Pattern)

① 점문양(Dots Pattern)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점문양의 특징은 전체를 메우던 pin dot에서 벗어나 coin dot 의polka dot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색채나 배열을 달리하여 점을 모티프로 한 새로운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1>



<그림 1> 점문양의 예 (왼쪽부터)

- 1) 2004 SS Lagerfeld 2) 2004 FW Cacharel
3) 2006 SS Anna Sui

② 스트라이프(Stripe Pattern)

스트라이프는 2000년대 초반 <그림 2> 2)의 여러 색상을 배열한 스트라이프가 나타나다가 다시 1980년대로의 복고주의와 함께 재해석되고 있다. <그림 2>의 1), 5)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은 1980년대 스포츠룩과 마린룩에서 보였던 스트라이프를 재현하고



〈그림 2〉 스트라이프의 예 (왼쪽부터)

- 1) 2004 SS Armani 2) 2004 SS Missoni 3) 2005 FW Frost French 4) 2006 SS Etro 5) 2006 SS Moschino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적 스트라이프 뿐 아니라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특정 문화색을 띤 문양들을 스트라이프와 함께 배치하여 형태상으로는 스트라이프이면서 일면 대화형 디자인의 특색을 띤 디자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③ 기타 기하학적 문양 (Geometric Patterns)

아래 〈그림 3〉과 같은 유틸리티 아트 풍의 기하학적 문양은 1960년대의 유틸리티 아트의 영향을 받아 패션에 등장하게 되었다. 기하학적인 면의 분할이나, 색채의 대비로서 보여지는 아래와 같은 문양들은 현재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양식을 반추하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구 패션에서 스스로의 과거를 단순한 재현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하나의 대상으로 양식화 하는 새로운 이국(異國)으로 상정하여 표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3〉 기하학적 문양의 예 (왼쪽부터)

- 1) 2003 FW Posen 2) 2005 SS Miu Miu
3) 2005 FW Etro

2) 꽃문양 (Floral & Botanical Pattern)

꽃문양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꽃문양은 복식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의 종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꽃문양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현대 패션의 다원화된 경향이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대개 꽃문양으로 불리워지는 이들 부류는 꽃 뿐 아니라 식물 문양, 작은 모티프들의 반복을 총칭하는 용어²²⁾이다. 스트라이프 문양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일맥 상통하여, 꽃문양의 모티프 자체에서 보여지는 형태적 특징 보다는 각각의 모티프가 내포하는 문화적 배경들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의 3)에 보이는 Kenzo의 디자인에서는 동양적 색채와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으며²³⁾, 4)의 Marni 역시 동양의 당초문양을 연상시키는 문양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와 6)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적인 사물의 표현이 아닌 매우 그래픽적으로 단순화, 도식화된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1)에서 보이는 사실적 표현의 모티프와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다.

나. 대화형 디자인

패션에 재등장한 다양한 문양들은 스트라이프, 점 문양, 꽃 문양 뿐 아니라 에니멀 프린트, 페이지리, 동양풍의 문양, 타탄 체크, 팝아트 및 기타 예술 사조의 이미지 차용 등 다양한 문화에 기반을 둔 대화형 디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한 문



〈그림 4〉 꽃문양의 예 (왼쪽부터)

1) 2004 SS John Galliano 2)~5) 2004 FW Dries Van Noten / Kenzo / Marni / Anna Sui 6) 2005 SS Cacharel

화권의 정체성, 대중소비문화의 반영, 로하스적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 예술양식에 대해 소통하는 문양들로 분류하였다.

1) 문화적 정체성의 반영

① 서구 민족 문화의 정체성 반영

- 체크 문양 (Plaids, Check, Tartan)

체크는 수직, 수평선의 교차로 이루어진 격자 문양으로, 최근 현대 패션에서 큰 크기의 체크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수직, 수평선의 교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형태상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구분하거나 있거나, 내용상으로 전통적인 문양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문양이 내포하는 의미는 형태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용적인 분류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보여지는 체크는 주로 스코틀랜드의 민속 복이었던 타탄(tartan) 체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타탄체크는 고대 스코틀랜드의 고원지대의 씨족들에게서 유래되어 계승, 발전된 것으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²⁴⁾ 2000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단순, 기능화, 직선, 격자로 이어지는 조형적 원인에서 나타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다민족적 문화의 한 흐름으로서의 유럽의 한 지역의 문화를 패션에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체크는 시대양식에서 소재를 찾던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의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다양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모색되고 있다.〈그림 5〉



〈그림 5〉 서구 민족 문화의 정체성 반영의 예 (왼쪽부터)

1) 2004 FW Louis Vuitton 2) 2004 SS Prada 3) 2005 FW Betsy Johnson 4) 2006 SS Ralph Lauren

② 아시아 민족문화의 정체성 반영- 에스닉, 민족풍 문양 (ethnic)

앞서 포스트모더니즘 시기의 장식적 특성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패션에서의 문양의 재등장은 획일적 인간화에 대항하여 개개인에 대한 차별과 존중의 의식이 성장함에 따른 것이고, 이는 다원화와 함께 기호와 취미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했다. 문화의 다원화를 입증해 주듯 이를 위해 소재로 삼은 것이 에스닉 모드이다.<그림 6>

특히 아시아 에스닉 패션은 수년전부터 패션에서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다. 동양에서도 주로 중국, 인도, 일본, 몽고, 한국의 문화가 중심이 되었던 1980,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는 또다른 민족적 소재들로 다변화한다.<(그림 6) 1),2),3),5),6)>

③ 기타 민족문화의 정체성 반영

조금더 특색적인 소재를 찾기 위해 아시아의 소수민족들의 문화로 그 눈을 돌리고, 조금 더 나아가

서는 아메리칸 원주민 문화(<그림 6> 11))를 채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2006년 트렌드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인 밀리터리 룩을 중심으로 한 민속의상과 유럽 각국의 민속의상들, 보헤미안적 소재들이 패션의 트렌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각국의 민족적 소재들이 패션에 등장함에 따라 각 민족적 장식 요소인 문양들이 함께 표현되게 된다. 이것은 문양 자체의 조형적 특성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문화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에스닉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 이국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과 유사하게 서구 문화 내에서 그들의 시대적 양식이나 러시아, 보헤미안 등 일부 지역의 민속복도 같은 방식으로 대상화하여 재구성한다. 이것은 아시아 즉, 비서구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 등의 패션에서의 자기 전통문화에



<그림 6> 아시아 및 기타 민족 문화의 정체성 반영의 예 (위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 | | |
|----------------------------------|----------------------------|------------------------------|
| 1) 2003 FW McQueen | 2) 2004 SS Prada | 3) 2004 FW Dries Van Noten |
| 4) 2005 SS Diane von Furstenburg | 5) 2005 SS Dries Van Noten | 6) 2005 FW Chloe |
| 7) 2005 SS DSquared | 8) 2005 SS Eley Kishimoto | 9) 2005 SS Oscar de la Lenta |
| 10) 2006 SS Jean Paul Gaultier | 11) 2006 SS Just Cavalli | 12) 2006 SS Moschino |



〈그림 7〉 대중소비 문화의 반영의 예 (왼쪽부터)
 1) 2005 FW Diesel 2) 2003 FW D&G 3) 2006 SS Basso & Brooke 4) 2005 FW Kenzo

대한 사례²⁵⁾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자문화의 재구성, 재해석을 통해 자기이국화(self-exoticising)하는 과정으로, 스스로 보편적인 흐름인 서구의 현재적 관점에서 자기 문화를 재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대중소비 문화의 반영

현재 대중문화의 속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복식에 표현된 것으로, 팝아트적 속성을 지니거나, 매우 그래픽적으로 가공되었으며, 인물의 형상, 낙서 등을 형상화 하고 있다. 〈그림 7〉 나타나는 이미지들에는 여성의 신체 부분(〈그림 7〉 1)) 중 입술 등의 묘사로 에로티시즘을 내포하기도 하며, 스트리트 패션이나 키치적인 감각을 반영한 예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로하스적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

역사적으로도 이전부터 가장 많이 문양의 소재로 쓰이던 꽃, 식물 문양들(〈그림 4〉)과 동물의 가죽 무늬 등 애니멀 프린트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모피나 가죽보다는 애니멀 프린트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림 8〉 1), 2)) 꽃, 식물문양의 경우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가 많다.

이것은 2000년 이후 소비 문화의 한 축이 되는 로하스(LOHAS)적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LOHAS는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사회, 경제, 환경적 토대를



〈그림 8〉 로하스적 라이프 스타일 반영의 예 (왼쪽부터)
 1) 2004 FW Versace 2) 2005 FW Anna Molinari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뜻한다. 2000년에 미국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²⁶⁾

4) 예술양식에 대한 소통

앞서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양에 관해 분류하면서, 자문화의 과거를 재구성, 재해석하여 이국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는 비단 민족 의상이나 서구문명 전파 이전의 상태에서 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 역사 속에서

그 소재를 찾는 것인데, 최근 트렌드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르네상스, 로코코 시기의 직물 문양으로부터 20세기의 예술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활용에 있어 이전의 양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였다. 1960년대의 옴아르나 기하학적 문양을 재구성한 예(〈그림 3〉, 〈그림 9〉)나 1980년대의 감각을 새롭게 조영한 예가 그러하다(〈그림 3〉 5)). 이들은 이전의 감각과는 달리 문양의 색상이나 구성에 있어 변화를 보인다. 단지 문양 등 표면의 구성 뿐 아니라 실루엣 등 신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조형성 부여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미적 감각을 투영한다.



〈그림 10〉 예술양식에 대한 소통의 예 (왼쪽부터)
1) 2003 FW Celine 2) 2004 FW Burberry Prosum

이는 역사적 안에서 소재를 찾는 복고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인데,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정 시기로의 회귀라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시기에 걸친 관심이 보여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문양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패션에서 나타난 문양은 점문양, 스트라이프, 기하학적인 문양, 자연물의 문양 뿐 아니라 체크, 민족적 문양 등 특

정 문화의 전통적인 모티프를 사용하는 경우나 이를 연상시키는 소재, 혹은 과거 예술양식을 반영하는 예가 많았다.

한 문화권의 특수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우 관습적 혹은 상징적 문양이나 소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된 스트라이프 내에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런데, 동양 문화권 전통적 문양이나 유럽 내에서의 전통적 문양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흐름은, 문양 자체의 조형적 특징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들 문양이 유래한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집단의 문화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근간이 잡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양식을 반영하고 이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멀지 않은 역사적 시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현재화의 모색은 새로운 복고주의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패션에서 민족 문화적 특색을 지닌 문양이 소재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국적 취향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국적 취향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민족적 특성에 노출된 현재의 다문화 분위기에서 서양인들은 비서양('the other')의 문화에 대해서만 이국취향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과거의 문화, 혹은 지역 문화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다시 이것을 '이국적 취향'으로 모문화에 제도입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 전통에 대한 이국취향화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국화 과정을 통하여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IV. 결론

2000년대 이후에 패션에 표현된 문양을 각종 컬렉션 자료들과 정보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990년대 미니멀리즘 이후 재등장한 다양한 문양들은 스트라이프, 꽃 문양 등 형태적 특성을 지닌 디자인 뿐 아니라 페이지리, 동양풍의 문양, 타탄 체크 등 다양한 전통 문화에 기반을 둔 대화형 디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동양 문화권 전통적 문양이

나 유럽 내에서의 전통적 문양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흐름은, 문양의 형태 자체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들 문양이 유래한 문화권에 대한 관심, 다양한 문화 집단 다양성의 수용, 새로운 복고주의, 이국적 취향이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에서 파생된 자기 이국화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대 패션에서 에스닉 패션에 관심은 그 새로움, 이국 취향 때문이다.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문양을 분석하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서구 문화 내에서 그들의 시대적 양식이나 일부 지역의 민속복도 같은 방식으로 대상함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자문화의 재구성, 재해석을 통해 자기이국화(self-exoticising)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자국 전통문화의 현대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자기 이국화에 대한 심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본 고에서 서양패션에서 나타난 문양에 대하여 그 문양이 표현된 배경을 고찰하는데 있어 의복의 표면에 표현된 문양의 성격에만 집중하였으나, 문양의 발현 배경뿐 아니라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복의 표현에 나타난 문양에서 확장시켜 신체와 착장 효과를 함께 고려한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1) Read, Herbert, 정시화 역 (1979). *The Principles of Industrial Design*, 디자인론, 미진사, pp. 179-185.
- 2) Davis Marian L. (1980). *Visual design in d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p. 17-27.
- 3) Davis (1980). *op. cit.*, p. 170;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I. 교문사, p. 179에서 재인용.
- 4) Meller, Susan & Elffers, Joost (1991). *Textile Desig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 13.
- 5) Worringer, W., 권원순 역 (1982). 추상과 감정미입. 계명대학교 출판부, pp. 69-99;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I. 교문사, p. 179에서 재인용.
- 6) 이선화, 권영숙 (2002). Baroque 직물에 나타난 floral 패턴의 조형성. *복식*, 52(7), pp. 1-11 등.
- 7) 안소영, 유송옥 (2003). 21세기 복식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 디자인 연구- 몽고 노인우라의 직물 문양을 응용한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 53(8), pp. 137-149 등.
- 8) 남윤숙, 김복희 (2001). 현대복식에 나타난 모자이크풍 패턴에 관한 연구. *복식*, 51(2), pp. 43-52 등.
- 9) 역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견해를 정리하였고, 주로 이경순 (1994). *op. cit.*, pp. 8-22.
- 10) 해당 논문에서는 복식에 있어서의 모든 장식적 디자인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중 직물에 대한 문양 사용 부분에 있어서만 논의하도록 한다. 박샛별 (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0(표 6).
- 11) 김수경 (2003).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복식문화연구*, 11(3), pp. 387-403. 이국취향의 요인을 호기심, 도피, 판타지, 하이브리드, 다원주의로 정리하였다.
- 12) Meller, Elffers (1991). *op. cit.*, p. 359.
- 13) 하지수 (2001).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2-56.
- 14) 하지수 (2001). *op. cit.*, pp. 79-81.
- 15) 문양을 구분함에 있어, 각 저서별로 디자인, 문양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문양의 구분명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각 저자의 용어 그대로를 작은따옴표 안에 인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분류상으로는 '디자인'을 사용하며, 패턴 자체를 가리킬 경우 '문양'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 16) Meller, Elffers (1991). *op. cit.*, pp. 8-9, p. 27, p. 139, p. 247, p. 359.
- 17) 영어 본문의 내용을 본고에서는 꽃 문양, 기하학적 문양, 대화형 문양, 민족적 문양, 예술운동과 시대양식 문양으로 번역하였다.
- 18) 이경순 (1994).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 현암사, pp. 40-44.
- 19) 차인선 (1999). 텍스타일 디자인. 예경, pp. 52-67.
- 20) Meller, Elffers (1991). *op. cit.*, p. 359.
- 21) 사진 출처: 2003 SS~2006 SS Women's collection, COLOR & FABRIC, COLLECTION, 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홈페이지, 자료출처 <http://www.cft.or.kr>, 자료 검색일 2006.08.01~08.23.
- 22) 이경순 (1994). *op. cit.*, p. 40.
- 23) Sandy Black (2006). edited, *Fashioning Fabrics*. Black Dog Publishing, p. 56.
- 24) 정혜정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체크 패턴 연구. *복식*, 52(2), pp. 31-44.
- 25) 권하진 (2005). 아시아인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1-65.
- 26) Ray, Paul H., & Anderson, Sherry Ruth (2001). *The Cultural Creatives: How 50 Million People Are Changing the world*, Three Rivers Press, pp. 329~333.